

2019년 8월 13일

오키나와국제대학 미군 헬기 추락사건에 관한 성명

오키나와국제대학
이사장·학장 마에쓰 에이켄

2004년 8월 13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미군 헬기가 추락하여 불타오른 사고로, 학생, 교직원, 시민, 현민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날의 추락 현장의 참사와, 미군의 부당한 사고 처리에 대한 시민과 현민의 강한 분노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희미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미군 헬기 추락사건 참사의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헬기 추락 사건에 대한 분노의 기억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새기고, 추락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후텐마 비행장의 폐쇄를 거듭 요구하고자, 여기에 강한 결의를 담아 「후텐마 기지의 폐쇄를 요구하고, 평화의 존엄성을 전하는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오키나와의 안전·안심·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일본 전체 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전용시설의 70.4%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미군 관련 사건이 수없이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군기지의 존재로 인한 위험성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리대신을 비롯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부담의 경감을 몇 번이나 약속해 왔으나, 기노완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의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결함이 지적된 오스프리와 노후화된 헬기가 현내의 상공을 비행하고 있어, 위험성은 오히려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민들의 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오키나와 현민의 불신은, 증폭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오키나와국제대학은, 류큐·오키나와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바래 온 「진정한 자유와 자치의 확립」을 견학정신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계로 열린 대학을 지향해 왔습니다. 안전·안심·평화에 대한 염원은, 대학인 뿐만 아니라, 사상·신조를 넘어 만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의 존속 하물며 고정화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후텐마 기지의 철거는,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의해 합의된 것이며, 현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키나와국제대학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후텐마 비행장을 즉시 폐쇄·철거할 것을, 다시 한번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평화를 향한 오키나와의 간절한 염원이 세계로 발신·공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